

전남농협, 연합판매 4500억 목표...브랜드 힘 쑥쑥 크다

농수축산물 산지 유통 일원화 올 1~2월 매출 632억원 ... 전년비 20% ↑
 전국 평균 증가율 5배 수준 ... 수출은 무려 49% 증가한 543만달러
 광역브랜드 '상큼에' '오매향' 인기 ... 딸기·블루베리·샤인머스켓 합류

전남 농수축산물에 대한 산지 유통과정을 일원화 하는 연합판매사업이 올해 들어 국내외 판매부문의 '두 자릿수' 증가율을 나타냈다.
 코로나19 침체에서 회복하는 여세를 몰아 전남 농협은 올해 판매목표 4500억원을 세웠으며, 공동 과실 브랜드 참여품목을 확대하며 산지 유통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27일 농협 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올해 1~2월 연합사업을 통한 농수축산물 판매액은 632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526억원)에 비해 20.2% (106억원)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 연합사업 매출 증가율 4.0% (3016억원→3137억원)의 5배 수준 성장세다.
 주요 품목별로 보면 최근 단가가 오른 배와 딸기 등이 성장을 이끌었다.

올해 들어 배 품목 연합사업 매출은 전년보다 93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4월 전남지역 배 농가들은 저온 현상 탓에 생육피해를 입었지만 나주와 순천, 영암 등에서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매출 또한 증가했다.
 지난해 육묘 기간 고온현상으로 피해를 입은 딸기 역시 가격이 급등하면서 매출은 전년보다 16억원 증가했다.
 배와 딸기 외에도 전년보다 매출이 늘어난 연합사업 농산물은 꾀꼬리(14억원 ↑), 멜론(10억원 ↑), 배추(6억원 ↑), 기타 양채류(5억원 ↑)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생산량이 늘면서 가격이 하락한 작물들의 매출은 줄었다.
 올 들어 두 달 동안 양과 연합사업 매출은 전년보다 무려 27억원 급증했으며, 신안과 진도가 주산지

인 대파 매출도 21억원 줄었다.
 고구마(-21억원)와 마늘(-10억원)도 매출이 내리막길을 걸었고 기타 채소류 매출은 21억원 감소했다.
 전남 농수축산물 수출은 코로나19 부진을 딛고 완연한 회복세를 나타냈다. 전남농협은 올해 수출 3000만달러(367억원)를 목표로 두고 있다.
 올해 1~2월 전남농협 연합사업 수출액은 542만6000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363만7000달러)보다 49.2%(178만9000달러) 급증했다. 올해 1월 한 달 동안만 356만8000달러 상당 수출했으며 지난해 같은 수출액 185만8000달러를 기록했다.
 올해 수출 품목별로 보면 농산물 수출액이 423만6000달러로, 전체의 78.1%를 차지했다. 가공식품은 116만8000달러(21.5%)로 뒤를 이었다. 농산물 수출액은 전년보다 84.2%(193만6000달러) 뛰었고, 가공식품 수출 증가율도 10.9%(11만5000달러)에 달했다.
 전남농협의 수출 10대 품목을 들여다보니 배가 58.9% 비중을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유자 가공식품이 14.6%로 뒤를 이었고, 파프리카(14.2%)→

배 음료(2.8%)→차(茶)류(2.4%)→화훼류 심비다움(2.3%)→김치(1.5%)→토마토(1.4%)→표고버섯(1.2%)→쌀(0.8%) 등 순이었다.
 전남 과실과 아열대작물을 대표하는 '상큼에'와 '오매향' 등 광역브랜드를 내건 농산물도 선전했다. 지난해 광역브랜드 매출은 151억6600만원으로, 전년 실적(133억6700만원)보다 13.5%(17억9900만원) 증가했다.
 지난해 매출 목표는 143억원이었는데, 목표를 106.1% 초과 달성한 셈이다.
 지난해에는 '상큼에' 브랜드 사업에 18개 농협이 참여했으며, '오매향'에는 3개 농협이 동참했다.
 올해는 사업 품목을 '상큼에'는 5개에서 9개로 늘리며 내실을 다진다.
 기존 운영했던 단감, 무화과, 배, 사과, 감귤류 품목 외에도 딸기, 블루베리, 체리, 샤인머스켓 등 4개 품목이 '상큼에' 브랜드에 합류한다.
 '상큼에' 딸기 사업에는 강진, 담양, 장흥지역이 동참하며 ▲블루베리=곡성, 담양, 장흥, 해남 ▲체리=곡성, 담양 ▲샤인머스켓=강진, 영암 등에서 참여를 확대한다.
 아열대작물 브랜드 '오매향'은 올해도 바나나,

비파, 애플망고 사업을 추진하며 정남진장흥농협이 애플망고 출하에 동참할 방침이다.
 전남농협은 최근 무안군 삼합읍 지역본부에서 '상반기 연합마케팅사업 추진전략회의'를 열고 올해 연합판매사업 4500억원 목표 달성을 다짐했다.
 전남농협은 시군연합사업단 12개소와 조합공동사업법인 5개소 등 농산물판매전담 통합마케팅조직 17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원예농산물 총 취급액은 2020년 4000억원을 돌파한 데 이어 지난해 4300억원을 달성했다.
 올해 활성화 방안으로는 ▲생산자조직(공동출하회·공선출하회) 250개소 육성 ▲소비자 만족률 강화 ▲공동물류체계 내실화 ▲해외수출 3000만달러 달성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한 온라인 판매 채널 다양화 등이 있다.
 박서홍 전남본부장은 "지역농협, 연합마케팅조직, 지역본부가 유기적 협력 속에 현장 위주 마케팅활동을 펼쳐 나감으로써 전남농협이 농산물 산지유통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전남도는 25일 오후 나주시 빛가람동 동명축산 육가공공장서 전남산 고품질 무항생제 돼지고기 홍콩 수출 기념행사를 가졌다. <전남도 제공>

전남산 고품질 돼지고기 홍콩 수출 본격화

1억2000만원 상당 300마리
 전남도, 수출 기념행사 열어
 전남도가 지난 25일 농업회사법인 ㈜동명축산과 대한한돈협회 전남도협의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산 고품질 돼지고기 홍콩 수출 기념행사를 가졌다.
 선적은 광양항에서 이뤄져 26일 본격적인 수출

길에 올랐다. 그동안 전남도는 전남산 고품질 돼지고기 수출을 확대하고, 양돈 산업의 안정화를 위해 적극적인 정책 지원을 했다. 도내 육가공업체인 ㈜동명축산은 계약 체결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했다.
 이러한 끝에 홍콩 현지 업체와 1억2000만원 상당 돼지 300마리 분량(지육 26t)의 수출 계약을 따냈다.
 수출 계약물량 중 첫 번째로 돼지고기 100마리

분량(8.5t) 삼겹살, 앞다리살, 뒷다리살 등 4000만원 어치를 수출하게 됐다. 지난해 8월 5t 분량의 시범수출 이후 두 번째 성과다.
 동명축산은 가공된 전남산 돼지고기 200마리 분량을 2차례에 걸쳐 홍콩에 추가로 수출할 계획이다. 수출물량 확대를 위해 현지 업체와 장기 수출 공급계약을 하고 업무협약도 체결할 예정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평동농협, 신용·경제 사업 활성화 '3관왕'

농협 광주지역 본부는 평동농협이 2021년 종합사업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농협중앙회로부터 기념패와 표창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평동농협은 최근 '종합사업평가 지역농협 종합업적 우수상' '상호금융대상 장려상' '농협중앙회 출자증대 우수상' 등 3관왕 영예를 안았다.
 지난 25일 고성 신 농협 광주지역 본부장은 평동농협을 찾아 김익찬 조합장과 신안나 삼임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3관왕을 기념하는 상패와 표창을 전달했다.
 평동농협은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도 신용·경제사업을 활성화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지역농업인을 위한 금융지원 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 판매 확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벌였다. '무인로컬푸드 직매장'을 개설하며 지역농업인의 농산물 판매를 확대하고 농촌인력증가센터를 운영하며 고령화와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



평동농협 김익찬(가운데) 조합장이 고성신(오른쪽) 농협 광주지역본부장으로 부터 기념패와 표창을 받고 있다. <농협 광주본부 제공>

는 농업인을 지원했다.
 또 고령 농업인에게 장수사진을 찍어주고 무료 건강검진을 펼치는 '농업인 행복버스' 등 사회공헌활동도 이어갔다.
 김익찬 평동농협 조합장은 "평동농협을 아껴준 농업인 조합원과 직원들 덕분에 3개 부문 수상을 거둘 수 있었다"며 "내실있는 경영과 농협 본연의 역할에 더욱 충실해 모두가 믿고 찾는 농협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